



한 마리의 양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 Ismael Martínez Sánchez / ACN

**“아프리카는 세상에
자연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제공하며, 우리에게 창조주의 신비를
알게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아프리카 땅과 아프리카인들은
파괴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2015년 11월 26일, 케냐 나이로비 UN 사무실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정결한 마음으로 맞이하기 위해 신체의 배고픔을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굶주리는 형제자매들에게 우리의 빵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순시기 ‘금식’의 의미입니다. 세상의 탐욕으로 인해 매일 매일 강제로 금식해야 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인구의 17%인 2억 명이 굶주리며 50%에 달하는 6억 명이 최저 생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아프리카의 현실입니다. 아프리카에는 황폐한 땅이 광활히 펼쳐져 있는 지역도 있지만, 1년 내내 언제나 수확이 가능할 정도로 비옥한 토지와 축복받은 기후를 가진 지역도 많습니다. 또한, 풍부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고 다양한 지역 문화도 있습니다. 사실 아프리카는 이 모든 것으로 지구상의 낙원이 될 수도 있는 곳입니다. 아프리카인들은 삶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민족들은 유행병, 부도덕한 지도층, 부정부패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이 아프리카에 낙태나

급진적인 성 이데올로기 등을 포함한 ‘죽음의 문화’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인구 절반 이상이 30세 이하인 아주 젊은 대륙입니다. 이곳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윤리’가 아니라 인류 공동체로서 공생하고 발전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성가정이 헤로데의 박해를 피해 아프리카 이집트로 떠나며 그리스도 교를 위한 진정한 길을 닦았던 것과 같이, 우리는 아프리카가 현대 식민화와 노예화의 온상인 전제 정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매일 굶주림으로
금식해야 하는 이들과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아프리카가 보유한 그 풍부한 천연 자원은 폭력 집단에 의해 약탈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언론매체도 이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민족 갈등으로 수백만 명이 죽어간 끔찍한 사태에 누가 관심을 가졌습니까? 누가 무기 사업가들의 탐욕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누가 천연자원을 둘러싼 전쟁이나 이슬람의 테러로 발생하는 수백만 명의 난민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콩고민주공화국에서만도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아프리카는 강도를 당한 후 길거리에 버려진 피해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의 상처에 기름을 발라 주는 것만으로 할 일을 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목소리, 하느님의 자녀로서 존엄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아프리카를 ‘교회의 허파’라고 부르시며 아프리카 사목의 중요성을 피력하셨습니다. 아프리카 교회는 희망을 잃고 사랑의 풍요로움과 삶의 기쁨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숨을 쉴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아프리카를 위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ACN 아프리카 캠페인은 아프리카의 영적 원천이 얼마나 풍부한지를 보여 줄 것입니다.

우리는 금식과 희생으로 그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의 희생은 아프리카인들의 정의를 향한 굶주림을 채워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순 시기를 축복하며 복된 부활을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마르틴 바르타 신부
국제 ACN 지도 신부

아프리카의 믿음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ACN 아프리카 캠페인 “아프리카의 믿음은 우리의 희망입니다”를 맞아 ACN 국제 본부와 여러 현지 지부장들이 나이지리아를 방문하였습니다. ACN 한국지부장인 저도 함께 방문하였고, 한국에 돌아온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방문이 진정 제 눈을 뜨게 해 주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작은 것에도 불만을 품고, 의기소침해지고, 포기하며, 자기 연민에 빠집니까? 나이지리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난을 견뎌냈지만, 결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직접 경험한 비통한 이야기들을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얼굴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급히 닦아내고 가장 빛나는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 중에 자신들을 기억해 달라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널리 알려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몇 해 전 나이지리아 북동부 도시, 치복(Chibok)에서 여학생 276명이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집단 ‘보코하람’(Boko Haram)에 의해 납치된 사건을 아십니까? 현재 납치된 여학생 중 일부만이 풀려났습니다.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의 이런 끔찍한 상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수많은 이들이 납치, 살해당하거나 추방당했습니다. 보코하람의 발생지였던 마이두구리(Maiduguri)에는 180만 명의 난민들이 머물며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개종을 거부하며 신앙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한 순교자의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보코하람으로부터 풀려난 아이들도 만났습니다. 보코하람은 납치한 아이들을 세뇌하였고, 테러리스트와 강제 결혼을 시키거나 폭약을 허리에 둘러 인간 폭탄으로서 시내 곳곳으로 내보냈다고 합니다. 28세 여성, 레베카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보코하람에게 납치되었던 그녀는 수개월 동안 온 힘을 다해 반항하였지만, 결국 그들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테러범의 아이를 임신한 채 고향인 마이두구리로 돌아왔고 그녀의 아들, 크리스토퍼는 이제 2살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이두구리교구장 올리버 다셰 도에메(Oliver Dashe Doeme) 주교님과 여러 사제께서는 매일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며 전적으로 그들의 양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계십니다.

ACN 대표단이 마이두구리에서 카두나(Kaduna)로 떠날 때에도 여러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자살 폭탄테러가 벌어졌습니다. 폭탄을 두르고 허공에 뛰어들었던 테러리스트들은 모두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간 테러는 2차례나 더 발생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ACN 대표단은 나이지리아의 세 도시, 마이두구리, 카두나, 카판찬(Kafanchan)을 방문했는데, 각 도시의 주교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모두 비슷하였습니다. 다만 보코하람, 풀라니(Fulani) 족, 혹은 다른 테러집단 등 가해자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나이지리아 그리스도인 1만 2천 명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 의해 목숨을 잃었고, 이슬람의 공격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이지리아 곳곳에서 그리스도교 집단에 의한 보복 사건이 벌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폭력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형제자매들은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올리버 주교님께서서는 신자들로 가득한 임시 성전에서 저희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ACN)를 “마이두구리교구의 척추”라고 부르시며 ACN이 없었다면 마이두구리교구도 사라졌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교님께서서는 대표단을 통해 ACN 후원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또한, 테러의 위협에도 나이지리아를 방문하여 연대를 표한 것에 그 중요성과 의의를 강조하셨습니다. 마이두구리 신자들은 이제 전 세계의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고통받는 그들을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며 지켜주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순 시기이지만 그들은 온 마음으로 기뻐하였습니다. 마음껏 노래하고, 춤추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봉헌된 미사는 제가 참례했던 미사 중에서도 기쁨과 자유가 넘치는 믿음의 축제였습니다. 나이지리아 형제자매들의 굳은 믿음은 진정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요하네스 클라우자
ACN 한국지부장 드림

알립니다

나이지리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대해 보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ACN 한국지부(대표 전화 02-796-6440)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의 본당, 기도모임, 또는 친지들이 함께하는 자리에 방문하여 나이지리아 형제자매들의 이야기를 상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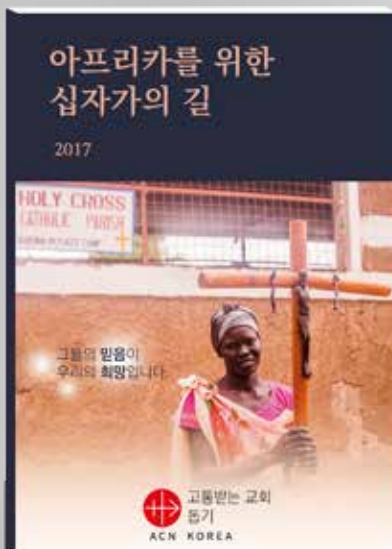


서울대교구 방배동성당

아프리카를 위한 십자가의 길

지난 3월 10일(금), ACN 한국지부는 서울대교구 방배동성당을 방문하였습니다. 평일미사에 참여하며 강론 중 ACN의 활동과 아프리카 형제자매들이 처한 상황 및 배경을 설명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당부하시는 3월 기도 지향 영상 메시지와 남수단 형제자매들의 이야기를 전하시는 탐부라 얌비오(Tambura-Yambio) 교구장 에두아르도 이보로 쿠살라(Eduardo Hiiboro Kussala) 주교님의 영상 등도 함께 시청하였습니다.

또한, 미사가 끝난 후 아프리카를 위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쳤습니다. 아프리카 형제자매들의 고통을 묵상하며 기도해 주신 방배동본당 교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초대해 주신 조정래 주임신부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프리카를 위한 십자가의 길〉

ACN은 2017 사순시기부터 부활절까지 아프리카 캠페인을 진행하며 아프리카 형제자매들의 고통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프리카를 위한 십자가의 길〉은 ACN 프로젝트 파트너인 아프리카 대륙 14개국의 주교, 사제, 수도자, 교리교사와 협력하여 완성한 것입니다. 보다 많은 분들께 알려 주시고, 사순시기 동안 함께 기도해 주세요. 소책자는 아래 방법으로 재고 소진 시까지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링크 <https://goo.gl/RjqlfS>

전화 02-796-6440

문자 010-7475-6440

(성함, 받으실 주소, 원하시는 부수와 함께 신청 문자를 남겨 주세요.)

QR코드



알립니다

〈아프리카를 위한 십자가의 길〉 29쪽에 번역 오류가 있습니다. 제14차 기도 세번째 줄 “(…)고집과 질투 안에서 죽을 수 있도록”은 “(…)고집과 질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으로 고쳐서 기도해 주세요. 원하시는 분들께 추후 교정 스티커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신청자 성함과 함께 휴대폰 문자(010-7475-6440)로 문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더욱 개선하고 발전하는 ACN이 되겠습니다.



나이지리아, 파티마의 평화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수는 몇 년 사이에 두 배로 늘어 약 2억 명이 되었습니다. 특히 나이지리아와 수단은 극단주의 무슬림들의 폭력 사태가 증가하면서 최악의 상황입니다.

나이지리아의 인구는 1억 8천만 명으로 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 가장 많지만, 사망자 수도 그만큼 많습니다. 지난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신자들은 미사 도중 공격을 당하고, 방화를 당하기도 합니다. 시장에는 폭탄 테러가 자행되고, 납치, 강도, 살인 사건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난민의 수는 무려 300만 명에 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웃들과 평화롭게 살고자 노력하지만, 많은 무슬림들이 함께 공존하고 협력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평화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이지리아 그리스도인은 2,500만 명으로, 대부분은 남부 지역에서 거주합니다. 최근 나이지리아 교회는 지역 인구의 15%가량인 신자 17만 명이 거주하는 북부 지역에 판신(Pankshin) 교구를 설립했습니다. 교구의 미카엘 고쿰(Michael Gokum)주교님께서는 파티마의 성모 수녀회 수녀님들의 사목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십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00년 전, 성모님께서 포르투갈 파티마에 발현하시어 히야친타, 루치아,

프란치스코 세 아이에게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얼마 후 전쟁은 종식되었고 군인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파티마의 성모 수녀회 수녀님 65분께서는 파티마의 어린이들을 따라 매일 성모님께 묵주기도를 드리며 평화를 기원합니다. 또한, 지역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학교를 운영하십니다. 수녀들께서는 공간이 부족하여 충분히 사목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ACN은 성전, 생활 공간, 수녀원 등을 증축할 수 있도록 45,000유로(약 5,500만 원)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국제 ACN 설립자, 베렌프리트 판 슈트라텐 신부님께서는 파티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뱀의 머리를 밟고 서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활동을 전적으로 성모님의 축복 아래 행할 수 있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박해받는 교회의 해방의 길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묵주기도는 회개와 속죄의 길, 희생의 길입니다. 나이지리아의 수녀님들과 학생들은 평화롭게 성모님의 자비와 기쁨을 만끽하고자 합니다. 우리도 이 여정에 동참하여 그들과 함께 묵주기도를 바쳐야 할 것입니다.

수단, 예수 부활의 희망

수단은 남부는 내전으로, 북부는 탄압으로 상처받은 나라입니다.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수단의 수도, 하르툼(Khartoum)의 가브리엘 주베이르 와코(Gabriel Zubeir Wako) 추기경님께서 부활 인사를 미리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고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추기경님의 이러한 메시지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사순 시기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척박한 고난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이들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수단에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가 넓게 퍼져 있어 가톨릭 사제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제들은 많이 지쳤습니다. 특히 누바(Nuba) 산악지역의 이슬람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야만인이라고 여기며 차별하기 때문에, 이곳 사제들은 더욱 힘겨운 사목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직자들은 침묵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하느님의 존재를 체험하고 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피정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동료 사제들과 친교의 시간을 가지고 동료애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피정을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피정의 집 건물이 많이 낡고 위험하여 보수가 필요하지만,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ACN은 이들의 요청에 귀를 기울여 3만 유로(약 3,600만 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제들은 여러분이 보여 주신 연대감으로 부활의 희망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냉, 대지와 영혼을 풍요롭게

아프리카 지원의 약 60%는 성전, 신학교, 수도원 등 교회 건축물 건립에 쓰입니다. 하느님 사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베냉 나티팅고(Natitingou) 교구의 성 안나(Anna) 본당은 20여 곳의 마을을 관할합니다. 그중 다쿠(Dakou) 마을은 신자 수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15년 전, 다쿠 공동체 신자들은 진흙으로 작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지역 토속 신앙인들은 이 성전을 악마의 장소라 부르면서 그리스도교의 신은 이 땅에 정착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흙 성전은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정신은 굳건히 자리 잡았고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신자들은 학교로 사용되는 장소에 모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화려한 이슬람 사원을 보면서 가톨릭 청년들은 이보다는 소박하지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제대로 된 성전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성전 재건 운동을 펼치고, 직접 두 팔을 걷고 성전 건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ACN은 창문 재료, 페인트, 의자, 시멘트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9,200유로(약 1,100만 원)**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본당 사제이신 히폴리테 바코마(Hippolyte Bakoma) 신부님은 ACN 가족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은 하느님의 말씀과 사랑이 전해진 곳입니다.”

‘시골을 위한 선교 형제회’(Rural Missionary Brothers) 수도원 출신인 히폴리테 신부님은 이 나라의 시골지역에 복음말씀을 전하고 발전을 이루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림 보호 운동을 벌이고, 기계 및 도구 사용법, 회계, 공정무역을 교육합니다. 신부님은 손수 밭에 씨앗을 뿌리며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하는지 모범을 보일 뿐만 아니라, 믿음을 파종하여 복음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기도 모임을 만들고 교리 교육을 하며 미사를 집전합니다. 신부님은 이곳의 대지와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잠비아, 가정사목 지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창세 1,27) 혼인은 하느님의 창조물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1994년, 아프리카 교회 대의원 회의에서 남녀 평등 가치에 관해 언급하셨습니다. 이 가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은 자기의 부부 관계나 주위 부부들의 모습에 대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고 있습니까? 혼인 생활의 소명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혼인 성소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깨닫고 있습니까? 모성과 부성의 가치를 이해합니까? 여성의 존엄성을 인정합니까? **잠비아** 6개 교구에서 모인 부부 86쌍은 ‘충만한 혼인 생활 및 가족 생활’이라는 교육에 참여하여, 이 질문을 깊이 이해하고 답을 찾고자 합니다.

이들은 교구로 돌아가 자신의 본당 신자들을 교육하고 이웃 본당에 파견될 것입니다. 그들은 가정사목 교리교사로서 성가정의 진정한 아름다움, 혼인과 가정생활의 가치와 사랑의 힘을 전할 것입니다. 지역 언어로 작성된 교육 자료들을 충분히 배포할 수 있도록 ACN은 후원자 여러분의 자비를 전하며 **15,000유로(약 1,800만 원)**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부카부 신학생들의 용기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는 진정한 용기란 어떤 역경이 닥칠 지라도, 심지어 죽음의 위협이 올지라도 인내하고 감수하며 진리를 지켜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동부지역은 열악한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20년 이상 지속된 내전의 영향으로 공공시설이 파괴되었고 무장 군인들이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부카부(Bukavu) 신학교 식구들은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폭력과 약탈로 그러한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신학생 72명, 교수 6명, 수도자 4명이 신학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안한 가운데에도 국가의 미래에 이바지할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 과업을 이웃의 도움 없이 혼자 수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ACN 가족 여러분께서는 식량 구입, 인권비 등을 위한 예산 **21,600유로(약 2,600만 원)**을 지원하여 주셨습니다. 신학생들이 이곳에서 배운 사랑과 믿음의 정신은 결코 약탈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이미 수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학생 카세레카 키칸두(Kasereka Kikandu, 24세)가 바로 그중 하나입니다. “신학교의 첫 학년은 두려움의 해였어요. 저는 학살과 약탈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들었거든요. 이곳에 왔을 때 선생님들의 마음과

용기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또한, 다른 나라에서 저희를 돕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놀랐습니다. 저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신앙의 형제라는 사실만으로 저희를 지원하시다니요! 저희는 큰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은 바로 여기 우리 가슴에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카세레카 학사님은 ACN 가족 여러분에게 그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온 마음을 다해 하느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제품을 받은 지 1년이 된 비타라 무르홀라 프랭크(Bitaha Murhula Franck) 신부님은 “저는 사제 생활을 하며 소명을 따를 수 있음에 무한한 기쁨을 느낍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부님은 ACN 후원자 여러분의 연대감과 희생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제 안에 머물던 선교 생활의 기쁨을 깨워 주셨습니다. 저는 ‘비타! 너는 너의 길이 있어. ACN 가족 여러분처럼 이웃들에게 자비의 복음을 전해야 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곤 합니다.”

이웃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의 정신입니다. 아프리카의 고통은 매우 큼니다. 지난해 4,700명 남짓 되는 아프리카 신학생들이 ACN의 지원을 받았는데, 이는 2년 전에 비해 무려 두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카부 교구에는 72명의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우연히도 루카복음서 10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제자의 수 72명과 동일합니다. 오늘날에는 콩고민주공화국만 해도 더 많은 민족이 살아가고 있지만, 당시 성서 속 사람들에게는 72개 민족이 세상 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2라는 수는 모든 민족이라는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부카부의 신학생들은 여러분의 자비로 용기와 인내를 품고 복음을 선포할 것이며, 이 복음은 머지않아 아프리카의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로 퍼져 나갈 것입니다.



시험을 보는 신학생들



기도 시간이 끝나면 신학교 마당에서 작업을 합니다.



부카부의 신학생들, 하느님의 부르심에 기쁜 마음으로 응답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CN 아프리카 담당 책임자 크리스틴 뒤 쿠드레(Christine du Coudray) 씨와 인터뷰를 진행하여 아프리카의 상황과 ACN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프리카는 ACN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ACN은 13년 전부터 아프리카 지역 활동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재정 지원 규모도 가장 큼니다. 저는 25년 전, 철의 장막 뒤에서 공산주의 정권 아래 박해받는 교회를 지원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장벽이 무너지고 동유럽 지역에 자유가 찾아오면서 아프리카가 가장 주요한 과제로 떠올랐지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1994년, ‘그리스도께서 아프리카를 부르신다’라는 표어로 아프리카 대륙 최초의 시노드를 주최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 전 세계에 아프리카의 젊은 교회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셨습니다. 이 역동적인 교회는 수많은 사제, 수도자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시설이 열악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고, 급진적 이슬람 세력이 사람들을 위협하고, ‘서양에서 흘러온 파괴적 문물’이 전통 가정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저희 ACN의 활동은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어떤 프로젝트들을 가장 최우선 순위로 두시나요?

아프리카의 교회는 여러 선교 단체의 물질적 지원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많은 지원들이 중단되었습니다. 사목 과제와 소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ACN은 신학생들을 양성하고 지원하며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또한 사제들의 교육과 피정, 영성 활동을 지원하며 수녀님들의 생계를 지원합니다.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등 사목 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운송수단을 구입하고, 지역 언어로 번역된 성서를 출판하며, 라디오나 TV 등 종교 방송을 제작합니다. 성전, 수도원 등 건설 지원도 합니

다. 아프리카 전역에서 수많은 요청이 쇄도하기 때문에 위기 정도를 신중히 선택하여 프로젝트들을 진행해야 합니다. 한동안은 앙골라,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등 공산주의 치하에 있는 국가 위주로 활동을 진행했고 이후에는 라이베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등 내전으로 고통받는 국가에 주목했습니다. 그 뒤로는 나이지리아, 말리, 케냐, 찬자니아 등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에 의해 고통받는 국가에 더욱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선 아프리카의 형제자매들로부터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프리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연대감을 느끼고 그들이 고통 속에 혼자 남겨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느낍니다. 제2차 시노드에서 유럽과 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주교님들께서 함께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100명의 주교님들께서 역사상 처음으로 만나 현안들을 논의하셨습니다.

아프리카의 가정사목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오랜 기간 ACN은 지역 가정사목 기관의 도움을 요청받았습니다. ACN은 개별 지원이 아니라 “아프리카 가족 연합”이란 기관을 통해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오늘날 성 정체성 운동과 같은 반가족적 캠페인이 범람하는 이 시대에 저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에게 계속하여 경고하고 계십니다. 다수의 서방정부와 기관들은 잘못된 정책으로 아프리카 세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본성의 진정한 가치를 지키고 전문지식을 알리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가톨릭교회가 2천 년 동안 추구했던 인간성을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프리카 담당 책임자, 크리스틴 뒤 쿠드레 씨의 인터뷰 장면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의 수행 가능한 사목 활동에 사용됩니다.





어린이를 위한 교리교육

토고 북부에 위치한 다파옹(Dapaong) 교구는 사하라 사막으로 통하는 문이라고 불립니다. 토고는 세계 최빈국 20개국 가운데 한 곳으로 국민 5명 중 4명은 하루 1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학교 부족을 뜻하기도 합니다. 언제나 야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페인 출신 선교사 후안 솔레 리바스(Joan Sole Ribas) 신부님께서서는 본당 교실의 건축 지원을 ACN에 요청하셨고, ACN이 응답하자마자 다시 서신을 보내셨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은 아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희 본당 전체에 크나큰 선물입니다.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다시 한 번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은총이 여러분을 채워 줄 것임을, 그리스도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머무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이들 100여 명이 정기적으로 교리 교육을 받는 모습을 보는 후안 신부님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국제 ACN 대표
요하네스 헤르만

Johannes Freiherr
Heereman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ACN은 아프리카 땅에 가장 중점적으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금하는 액수의 1/4인 **약 2,200만 유로(약 270억 원)**가 아프리카 땅에 보내집니다. 아프리카를 지원하는 것은 현재 어려움에 처한 가난한 이들에 대한 원조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아프리카 교회는 그 어느 곳보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젊고 역동적입니다. 아프리카 그리스도인들은 억압적인 이슬람 세력에 대항해 살아남기 위하여 전 세계 형제자매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교회가 힘을 가진다면 훗날 이들이 우리를 다시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선교는 절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희 ACN의 지원은 어느 정부나 다른 원조기구들의 활동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ACN의 근본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있는 만큼 저희는 하느님 안에서 형제자매들의 생활을 돕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교회와 함께하는 우리의 하나된 연대는 ‘사랑의 문명’입니다. 사랑의 문명은 희망을 지니고 있기에 ‘죽음의 문화’와 타락의 문화보다 강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교의 진정한 정신이기도 합니다.

모든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Johannes Heereman

후원, 사랑 그리고 감사를 전하는 편지

감동적인 강론 말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 후, 베네프리트 신부님께서 저희 본당에 오셔서 강론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너무 감동을 받으신 나머지 마침 주머니에 들어 있던 월급을 전부 봉헌 바구니에 넣으셨어요. 아버지는 결혼 반지까지 빼서 넣을 생각이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머니께서 서운해 하실 거라는 생각이 번뜩 스쳤다고 합니다. 저희 식구와 ACN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벨기에에서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

ACN은 선한 의지를 가진 모든 이들을 대변합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수많은 이들의 손과 발이 되어 직접적인 도움을 전하는 것입니다.

브라질에서

기도와 후원

〈사랑의 메아리〉는 항상 감동적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가난하고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위기의 교회와 함께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아동사목과 가정사목의 중요성

〈사랑의 메아리〉를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아동사목과 가정사목의 중요성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을 것입니다.

독일에서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www.churchinneed.or.kr

[/aidtothechurchinneed](https://www.facebook.com/aidtothechurchinneed)

[@acn_korea](https://www.instagram.com/acn_korea)

info@churchinneed.or.kr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67 8층

전화: 02-796-6440 팩스: 02-796-6439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121620 (사)에이드투더처치인니드코리아

교황청
재단

